

○○○·해방후 각 공화국의 통치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시리즈 <1>

체제강화에 골몰한 정권 변천사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배워 왔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 국가, 국가권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시리즈는 '국가론' 논의의 토대위에서 한국 국가권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글 쓰는 순서

1. 국가의 일반적 성격과 정치권력의 형태
2. 이승만정권의 승공정체
3. 3·4공화국의 스몰드라이브 정책
4. 정의사회구현과 전두환 정권
5. 6공화국의 북방외교와 경제정책
6. 해방후 각 공화국의 성격과 본질(좌담)

는 비자립적이며, 그것은 한국자본주의의 식민주의적, 그리고 신식민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종속적 성격을 반영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Ⅲ. 한국의 국가성격

한국에서 국가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은 대개 '예속성', '분단', '폭력적 국가체제' 등

의 바탕을 형성하여 민중부문의 탈정치화와 친미·반공 국가를 심화시킨 것이다.

셋째, 개발독재국가에서 일반화된 현상으로 폭력적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체제의 폭력성은 민중의 민주적 제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무수히 포함하고 있는데 역대정권은 대·경보기관 등과

일제시대의 식민지 반봉건사회구성체는 농촌의 폭력적 계급분해를 근간으로 유지된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에 있었으며, 식민지경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예속자본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식민지경제는 그 계급구조에 있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중층적 구조를 유지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기의 지배구조는 식민지경제를 온존시킨 채 미군정체와의 결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의적 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기본 모순구조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해방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왜곡되어온 한국자본주의는 2차대전후 신국체질서속에서 그 종속적 성격과 전략적 위치를 강제받았다. 따라서 해방후 50년대는 식민지유체의 총체적 청산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감행하는 계기를 노출시켰다. 박정희정권의 등장은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권력 형성기부터 반공을 국시로 삼고 분단이데올로기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군부독재정권은 재반공법을 제정하고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면서 기층민중의 경제적 요구를 묵살하는 정치적 억압을 자행하고 민족통일세력들을 구축하는데 골몰했다. 또한 군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은 국내적 민중운동의 발전과 한국내에서 제국주의 자본활동의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론적관점에서 필연적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박정권은 해외자본에 의존한 국가주의의 해국적인 자본주의 산업화를 계획했다. 이것은 대규모의 저임금 노동력 동원과 경영권 수출지향산업집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반면 자본축적의 전이차로서 국가는 자본가를 2차적 동맹자로 삼고 노동자를 탈정치화시키는 한편 관료적 권위주의를 형성한다. 6·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계급구조를 분화시키는데, 이점에서 성장우선적, 재벌중심적, 노동억압적 축적체제는 지배·피지배계급간의 대립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불균등·불평등발전을 한국자본주의발전의 특징으로 위치짓게 한다. 유신체제는 중화학공업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의 변화과정에서 사회계급의 중폭된 모순이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권력의 수준을 비약시킨 조사독재정권이다.

10·26은 지배세력내에서 민주화운동의 표적을 제거함으로써 민주화열기를 와해 또는 해소하고자 한 시도일뿐, 기존 억압관계의 궁극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 79년말부터 80년초의 전두환군부세력의 정권장악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전두환정권의 특징은 한마디로 독압적 국가권력기구의 정비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범초기부터 반민중적 독압체제에 장악이 되는 민주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실은 향후 통치질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그러나 80년대의 상황은 종속적 자본주의화가 보다 전진됨에 따라 독압적 지배체제에서 사회화제반 모순이 위기적 폭발에 직면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그 위기는 제국주의와 예속독점세력의 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조짐으로 확대·발전된 과정이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급속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내의 민중적 계급의 성장과 저항은 전정권을 퇴진시키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87년 6월항쟁, 6·29선언, 7·8월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노정권의 성립도 분석해볼때, 6월항쟁은 국가권력 및 지배세력에 대한 기층민중의 직접적, 전투적저항으로 기록된 역사적 대사건이며, 반면

6·29선언은 이른바 군사체제주도하의 개량국면, 즉 국가기구가 손상받지 않는 선에서 지배세력에 유리한 정황을 조성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기존의 지배적 사회관계와 축적된 분배체제에 대한 계급적 재편성을 요구한 대사건이었다. 또한 노정권의 성립은 보수야당에 대한 63%의 지지도에서 나타나듯 군부 정권에 대한 비등한 반감을 내포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정권의 정동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90년초 군부정권과 기존 보수야당과의 3당통합은 기만적인 통치지배층이 피지배층의 동의를 무시한 배신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며, 그이후 통합세력 내부의 압력과 혼미는 국가의 정치·경제적위기를 조장하는 파국의 국면으로 치닫해 갔던 것이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개량국면은 군사독재구조하의 개량화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는 명백한 것이며, 이것을 마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민주적 개방의 단초는 계급이익과 요구의 스펙트럼에 따른 세력재편성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반공사독재전선의 재편성과 대치선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러한 재편성과 대치선의 변화를 허용치 않으며 강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동원들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무력화 시키나기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정권은 군사독재의 완성적 개량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민중역량의 고양, 선거혁명에서의 승리, 그리고 완전한 자주화와 민주화의 획득을 위한 총배전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진다.

V. 맺음말

주지하듯이 국가독점자본주의란 독점자본과 국가의 유착이라는 특성이 일반적위기의 고조화라는 조건을 매개로 전면화 되면서 독점자본권력과 국가권력의 단일 메카니즘으로 결합된 양태이다.

이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제기된 여러 요인들을 식양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국주의에 대한 탈예속성, 친미·반공국가에의 탈교, 폭력적 국가체제의 해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방이후 45년간의 정치적 변화가 지배구조와 민중간의 힘의 대립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져 온 것을 일대혁신했던 지배계층은 향후 국가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민의를 수렴하고 정치적인 세대교체 그리고 경제적인 배분을 통한 국민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정 주 신
(호서대 강사·정치학)

국가의 성격과 정치권력의 형태

I. 문제제기

국가권력의 문제는 그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계급으로 분열되었을 때조차 국가는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면 지배계급은 특수한 무장조직체 속에서 장출되며 국가는 계급적대립의 화해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도구이며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란 계급적대립을 막기 위한 필요에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갈등 가운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국가라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이 되어 피지배계급을 정치적, 경제적 모순으로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계급의 국가가 된다”

레닌이 지적한 바는 국가가 적대적 사회구성체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구성체의 기본모순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주요모순의 응축이라는 점과 이 구성체의 기본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핵심고리인 국가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두가지 주요한 입장이 있다.

우선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적 입장은 국가란 계급투쟁의 산물이며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체제가 가지는 필연적인 모순을 둔화시킴으로써 이 체제를 붕괴로부터 구출하는데 있다고 본다. 반면 신배부주의적 국가론의 입장은 국가를 정통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고 국가의 역할도 그 국가가 위치한 사회권력구조

내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구조론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국가의부의 영향에 따른 종속성에 초점을 두며, 신배부주의적 국가론은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집단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본 글은 전자 즉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입장에서 국가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형성 및 성격을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함을 고찰 하는데 있다. 예컨대 한국과 같은 종속국가에서 독점자본주의의 기원은 국내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제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레닌적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한국의 국가성격을 논의하는 시리즈 차원에 있어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국가 형태의 변화를 대략적이나마 총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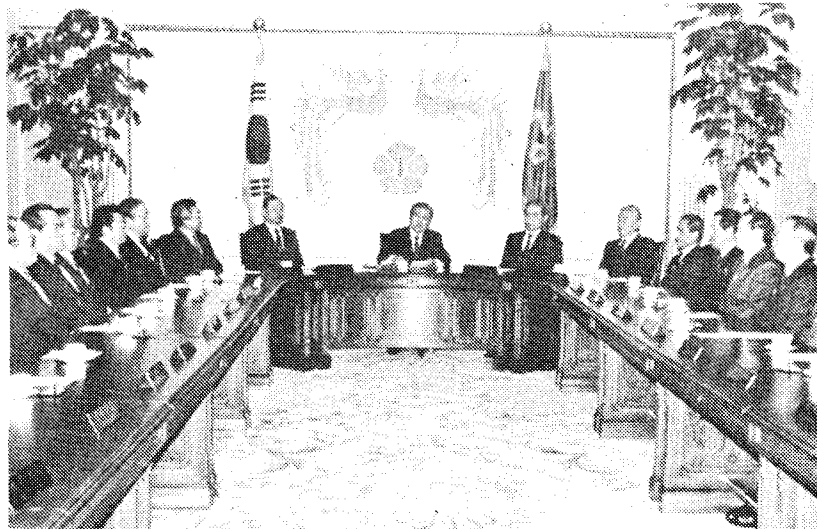
먼저 국가의 성격과 형태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론적 명백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논의되어온 방법상의 문제를 언급해 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라틴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국면에 진입했느냐 혹은 그 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자본주의적론 속의되어야 함이 옳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에 있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고도의 공업화를 성취한 선진적 자본주의사회의 측면이고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되기 이전의 단계를 지칭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다만 두 유형의 체제에

대한 구분의 기준은 예컨대 국가권력의 계급적 성격,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정도,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본의 형태등이 될 것이다. 가령 상당한 정도의 민족적 이해를 내세우는 부르조아가 국가권력을 장악한 다음 토착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우너지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자립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모형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이미 자본주의의 발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된 수준에서 독

점부르조아가 국가장치를 장악하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국면은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의 소산이며,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성숙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산업화와 사회구조의 변동을 설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라는 연구체계는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헌재교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따르면 자본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1960년대 이후로 외국자본을 주축으로 한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성장모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 성장모델의 특징은 외국자본의 초파이를 실현이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한국의 경제인양을 누출시킴으로써 초래되는 대외 의존의 심화, 산업간·기업간 연관성의 부재, 노동자의 궁핍화 그리고 산업불균형의 고정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로 귀결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는 도구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물리력의한 이윤확보, 체제유지가 본질 反제 통한 폭압적 국가기구 해체가 관건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대체적으로 외세규정의 함의를 깊게 내포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의 국가성격을 규명하는 절대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을 들 수 있다. 해방이후 국가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것 중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예속독점자본의 형성이다. 이러한 예속독점자본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민중적 저항을 무너뜨리고 군부독재정권의 주도하에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수행하면서 식민지·종속형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이라는 보편적 법칙성을 유도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둘째, 한국의 국가형태는 분단의 상황하에서 친미·반공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분단국가로서의 성격은 미·소제국주의적 이해가 한반도에서 관철되는, 체제간의 냉전구조 하에서 창출된 특수한 성격을 지니며, 그중 미국은 친미독재정권 태동

한을 통치메카니즘의 폭압적기능을 강화시켜온데 그 특징이 있다. 이상의 세가지 요인들이 서로 밀착하면서 한국의 국가성격을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국제독점체제와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중부문에 대한 억압을 감행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중심부 제국주의국가들(미·일)에 의한 예속과 그강화로 고착되어 왔다.

Ⅳ. 우리나라 국가형태의 변화

국가의 지배형태는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이 결합된 단일 메카니즘의 형태이기 때문에 편의상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형태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적용은 예컨대 자본축적의 조건과 발전, 계급구조 및 지배세력의 구조, 국가엘리트의 성격과 국가의 역할변화, 그리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힘의 변화등이 기준이 되겠다. 여기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제6공화국까지 한국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구조와 지배계급과 민중간의 힘의 대립적 관계를 논의코자 한다.

전후세계자본주의의 재편성과정에 편입되어 미국에의 종속과 원조에 기생하는 관료독점자본주의 시기로 규정된다.

이승만정권은 우선 형식적 서구민주주의로 포장된 민간독재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를 위로부터 부과하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띤다. 이것은 국가가 자본을 배분·관리하고 자본가를 창출해냈으며, 식민지관료기구를 전수받고 국내안정보다는 군사대결을 위한 현대적 군부의 성장으로 정비된 과대성장국가의 특징에 부합된다. 둘째로 이 정권하의 한국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첨예한 대립의 장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우익 멘탈리티의 강화 및 토착화의 토양으로 변모했으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반미는 철저히 배제시킨 채 친미세력들에 의한 국가가 형성되었다.

정권 정권은 이승만독재가 무너진후 등장하였지만, 민족민주세력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 지배연합 부분으로서의 정치적 군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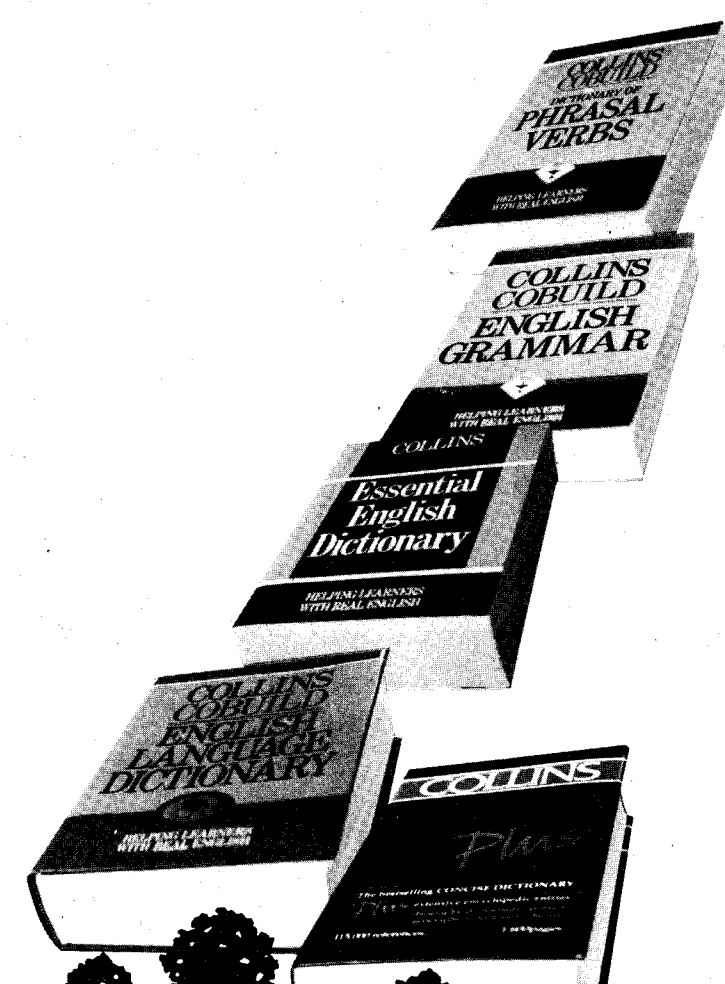
설비는 가슴에 혼을 불어 넣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곳
세계를 만나는 곳
대학인을 위한 모든 책이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대한교육보림이 '국민교육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설립한'

Tel 780-7991 대외국에 241, 242 대학원서교재 274, 275 도서안내 735-6151

교보문고



COBUILD

英英辭典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추천한 영어사전의 결정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전의 혁명이다!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 70,000여 단어에 90,000여개의 예문을 수록한 세계 최초의 예문중심 사전입니다. ■ 하드커버 / 18,000원

■ 제1판 / 12,000원

COLLINS COBUILD ESSENTIAL ENGLISH DICTIONARY

■ 모든 의미가 완전한 문장과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예문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보급판 정가 / 7,000원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 표현방법에 따라 정확한 구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의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보급판 정가 / 9,000원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 까다로운 구문사를 3,000여개로 압축하고 12,000여 실제 용례를 들어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급판 정가 / 9,500원

COLLINS CONCISE DICTIONARY PLUS

■ 98,000여 어휘에 15,000여 백과사전 항목을 추가한 백과사전형 영어사전입니다. ■ 보급판 정가 / 19,000원

*교보문고가 직접 수입·판매합니다.